

“불교사회화 달성·내적 청산 후 불교종합연구소 운영해야”

종교편향 사태에 즈음한 불교계의 여론

최근 불교계 내외에서는 공우병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불교계의 행보, 그리고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시정하기 위해 개최된 범불교대회(시청앞 광장)의 의미 및 진로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다. 범불교대회에는 조계종단을 비롯한 다수의 종단이 합세하였으며, 전국 각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참여한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기념비적인 대회가 되었다. 시청 앞에 모인 20여만 사부대중은 종교를 기독교로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을 비판하고, 그런 편향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여 나아가서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여만의 사부대중이 모여 그런 대화를 하게 된 저변에는 기독교의 성장, 기독교인의 공직자 진출의 상당함으로부터 불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추후에는 더욱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대화를 강행한 것이 정당하였는가,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었는가, 그 대화를 주도한 세력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시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당선에서 불교의 의견함을 보여주고 사태를 봉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불교의 목소리는 다양하고, 그 분석과 해법도 분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유의할 것은 불교계 내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불교계 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천주교뿐 만이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불교계 외부의 목소리는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짧은 이 지면에서 불교계 내외의 진단과 목소리를 전달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근현대 불교를 연구한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를 개진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한다.

불교 사회화의 등장, 계승, 그 업보

이번 사태가 발발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공직사회에 불교를 믿는 재가불자들이 기독교인을 능가할 정도로 많았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불교계 신문에 불교신자가 청와대, 국회, 행정부에 입성한 사람이 몇 명인지 보도된다. 그 수는 기독교인에 비해 열등한 내용이다. 그러면 왜 공직자에 불교인이 그렇게 적은가? 이는 불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생명과 같은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불교는 지난 100여 년 간 불조해명을 철저히 계승, 구현하였는가? 그리고 중생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국가와 사회의 고통과 모순, 중생들의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고뇌하였는가? 이런 지적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을 하는 스님과 불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교는 그간 산중불교의 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불교의 사회화, 중생구제, 국가 및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동참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각성을 한 종단, 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과거 보다는 진일보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급성장하였던 개신교, 천주교의 활동에 비해서는 미약하다. 불교가 내적인 갈등을 보이고, 불교재산을 망실하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벌이고, 폭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이웃 종교는 불교를 추월했다. 그리고 삶과 존재 사이의 미로에서 고통을 받았던 다수

의 무종교인들은 불교를 찾지 않고, 타종교로 갔음을 적시해야 한다. 그 결과가 최근의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에는 인연법이 있다. 그 인연법을 불교 사상오로만 찾지 말고, 세속의 문제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부처님 법으로 철저히,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난 100년간 불교가 걸어온 길 중에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 해결에 나섰던 흐름도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 흐름이 불교의 주류로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제시하겠다. 개항기의 불교는 서구문명의 도래, 일본불교의 침투 등으로 방향 감각을 찾지 못했다. 산중불교라는 명에 벗지 못하고, 그런 결과로 사회의식도 없었다. 더욱이 외세를 등에 업고 침투한 개신교의 위세는 감당도 못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승려들은 문명화된 일본불교의 모방에 급급했다. 그런 현실은 자주적, 자생적인 종단도 유지,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다. 종단도 만들지 못한 현실에서 중생구제, 국가와 사회의 문제 해결을 바랄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나라는 1910년 8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나라도 망한 현실에서 불교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한 용운은 불교의 체질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선불교 유신론>을 펴냈다. 당시 그에 대한 반응이 찬성과 비방이 비슷하였다. 함은 당시 불교계 내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는 정도였다고 본다.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본은 불교의 호국성, 민중과의 친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철저한 통제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찰령이었다. 그 결과 한국불교는 일제가 패망하는 그날까지 일제의 간악한 구속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불교 본연의 길을 가기 위한 고부를 전개한 스님들이 다수 있었다. 그들은 식민지 불교체제에 반발하며, 사찰령 철폐를 주장하고, 자주적인 종단을 만들려 노력하고, 사회와 중생의 터전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 및 체질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운동에도 참여하였다. 3·1운동, 임시정부, 만주 독립군에 참여, 군자금 제공 등이 그 예증이다. 그들의 분투로 1941년에는 조계종의 전신인 조선불교 조계종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불교의 영향아래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대처승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승려의 결혼은 계율에서도 금하였고, 1500여년간 한국불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전통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교 사회화, 승려 인권의 고양을 이유로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보수적 불교, 관행적 불교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들의 선택, 노선은 일제하에서는 일본불교와의 공존, 일제의 은근한 후원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8·15해방이 되면서 이들의 노선은 불교계 내부에서 비판받기 시작했다. 그 비판, 반발은 1950~1960년대의 이른바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극명하게 노출되었다. 공권력과 일반사회에서의 비판, 수행승인 승려들의 강력 저항으로 인해 대처승은 제도권 밖으로 구속되었다. 대처승들의 축출은 대처승이 내걸었던 불교 사회화의 물라클을 의미하였다. 바로 이럴 때에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다. 대처승들은 태고종을 만들어 자신들이 구현하였던 불교 사회화가 새로운 대승 불교운동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태고종단을 비롯한 군소종단에서 불교사회화가 잘 실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하는 바가 많다.

한편, 일제하 불교에서 승려 결혼을 실천한 승려들을 비판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은 선학원 계열 수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수승도승이라고 자부하고, 불법과 전통불교의 관점에서 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들은 일제하의 주류불교는 아니었지만 정제성, 전통성을 지킨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교 사회화, 혹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

논제2 :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논리와 내적 자성

김광식(부천대 교수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연구실장)



불교계는 지난 반세기동안 내적 혼란상을 겪으며 외부 종교의 극단적 선교 방식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조계종 사태(1)와 종교편향 항의 기자회견 모습(2).

다. 불조해명 계승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러다가 이 계열의 수좌들은 1950년대 불교정화운동을 통하여 조계종단의 주류가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종단을 재건하고, 요직을 맡고, 사찰 주지도 맡았다. 그러나 정화운동 과정에서 폭력, 사법부 송사, 재산몰탈, 후계 승려에 대한 교육 및 수행의 미실시 등의 문제로 업보를 잉태하였다. 바로 이 업보가 1970년대의 수많은 갈등, 재판, 명리 추구임은 보편화된 상식이고, 그로 인해 10·27법난의 요인도 제공했다.

이에 대한 비판과 각성은 1980년대에 불교계 내부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다. 해인사승려대회, 민중불교,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등의 대두가 그것이다. 그 결과 1994년 이른바 '종단개혁'이라는 불교 내부의 새로운 흐름이 분출되었다. 1994년 종단개혁은 다양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제도적인 측면에 머물렀다. 교육 분야를 비롯한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당초 주체성이 내건 목표는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는 1998·1999년 내용에서 결정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는 1980~1990년대 개혁의 흐름으로도 불교가 가야 할 길을 가지는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1950~1990년대의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 행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이념 구현에 미진했다. 달리 말하면 국가, 사회, 중생, 대중을 위한 불교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런 역사에서 최근의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종합 고찰하며 인재 양성해야

이번 사태를 치유하고, 불교발전은 이루는 길은 불교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연후에 불교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강구이다. 이런 입론 하에서는 불교계 외부에 불교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태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문중 문도의 갈등, 명리추구를 위한 내적 소비, 반불교적인 정서 청산은 당연하다. 이런 구도 하에서 교학, 종학, 불교사, 응용불교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연구소를 시급히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한국의 민족문화를 대변하고, 민족불교임을 강조하고, 1등 종교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걸맞은 연구소, 종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폭넓게 연구해 정도를 모색하는 종합연구소 하나 운영하지 못하고서야 무슨 주장을 하겠는가? 이런 연구소에서는 불교 이념, 불교 사회화를 실천하기 위한 내적 방향, 각론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것이 갖추어지게 된 후에는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불교인재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구석구석에 포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종교편향이 없어지고, 불교가 민족불교가 되고, 1등 종교가 된다. 문제는 이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오동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변화를 가능하는 곳이 우리 불교였는데, 요즘은 오동일을 찾지도 않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연료비 90% 절약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성장하는 어린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금사원단
- 활성탄
- 3단접이 보관
- 완전 방수기능

특허품 : 무동력 히팅수행기
2008년 특허청 지식재산권 등록
국립의료원 연구보고서 인용되어 있음

후불제 판매단행!

전자파 없고

전선이 아닌 온수순환 방식으로 전자파가 없습니다

모터없고 소음없는 무동력 온수매트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10-2008-0002113 10-2008-0009761
10-2008-0019875 10-2008-0064719
국제특허 : PCT/KR2008/003038
*무단복제 사용자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빙 온돌방의 특징점

엘빙 온돌방 온수보일러는 모터작동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이 아닌 후동력(자연순환방식)이라 고장률이 거의 없으며, 모터회전에 의한 소음이 없습니다.

- 무동력 디지털 보일러 : 기존의 강제순환방식(동력에서 벗어나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모터없이 물을 자연순환시켜 소음이 없고 가열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른 발열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국내산 :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방식이 때문에 유해전자파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온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기쁜한 엘빙 온돌방입니다.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가 따뜻하여 아주 좋습니다. 대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취급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큼니다.

현금가 : 1인용 218,000원 2인용 248,000원
지로분할가 : 1인용 : 52,000×5회 / 2인용 : 59,000×5회

대진하우징 전문전화 **080-338-3388**

입금계좌 (농협) : 1285-02-011378 이현실